NEWSIS 지방 > 경남

남해관광문화재단, 여행사 대상 '2022 남해군 방문의해' 팸투어

등록 2021.09.03 11:45:29

[남해=뉴시스] 차용현 기자 = '2022 남해군 방문의 해'에 맞춘 남해여행상품 개발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.

경남 남해군 남해관광문화재단은 '2022 남해군 방문의 해'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해 바래길, 독일마을, 다랭이마을 등 주요 관광목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2022년 여행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한달 동안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전담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소규모 상품개발 팸투어를 진행했다.

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맞춰 진행된 이번 팸투어는 변화된 코로나19 관광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특색 있는 남해의 관광 상품을 개발·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.

팸투어 참가자들은 남해의 대표 관광지인 독일마을, 다랭이마을과 함께 남해 바래길 걷기여행코스와 웰니스 여행상품, 신규 관광자원인 남해각, 설리스카이워크, 뮤지엄 남해, 이순신 순국공원 등 다양한 관광목적지를 살펴봤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"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변화된 관광환경에 대응하고 2022 남해군 방문의 해에 발맞추어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여행사 대상 여행상품개발을 추진하게 됐다"며 "남해군 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을 통한 남해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정책과 활동을 펼쳐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전담여행사는 지난 6월에 아름여행사와 해밀여행사 등 전국 23곳이 선정됐으며 남해군 방문의 해 기간 동안 남해군 체류·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, 관광홍보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con@newsis.com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